

일루리곤에 복음이 편만하기 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예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때면 살아있는 말씀 앞에 더 겸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삶의 이유와 소망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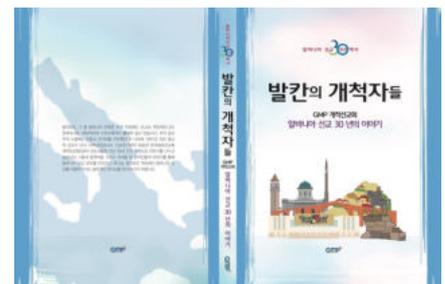
그동안의 일들

3월에 여성의 날을 맞아 가나안교회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이웃들을 초대해 간증과 복음을 전하며 음식과 선물로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엔드리나의 살아 있는 간증과 알바니아의 열정적인 복음제시가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여성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생명이 되서 믿음의 어머니들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4월 초에는 예수제자운동 유학생 단기팀이 알바니아에 왔습니다. 유럽각지에서 알바니아로 모인 6명의 지체들이 가나안교회 어린이, 청소년 사역 그리고 코소보 홈스쿨링 학교에서 MK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다해 섬기는 단기팀들의 모습을 통해 가나안교회 리더들과 코소보MK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바니아GMP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백서가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4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백서를 위해 최조영 선교사가 편집팀장으로 섬겼습니다. 성실하고 훌륭한 편집팀원들과 함께 GMP 알바니아 선후배 선교사님들,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현지 동역자들의 30년 발자취를 담은 역사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알바니아 30년의 선교역사에 우리가정도 20년을 함께 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 입니다. 올 해가 저희 가정의 선교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단체 선교사님들이 함께 축하와 격려해 주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이 함께여서 가능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20년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저희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홍정희 선교사 아버님의 소천 소식입니다. 지난 기도편지에 기도 부탁드렸던 아버님께서 4월 29일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누구보다 선교사 딸과 사위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그 빈 자리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자녀들을 선교사로 드린 아버님께 선교사의 상으로 갚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 듯이 아버님의 소천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참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누가 뭐래도 이 길을 더욱 담대히 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유품들을 정리할 때 성경책 갈피마다 꽂아 있던 말씀 묵상 쪽지가 한상자가 득 나왔습니다. 홍정희 선교사가 가족들 읽어 볼 수 있게 상자에 정리해 놓고 자신이 처음 뽑아서 읽은 쪽지의 글 귀가 마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베품에 적당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는 진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귀임해서 2월 말 부터 시작한 소그룹 성경공부들에 더 열정을 갖고 임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것,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드러도 아깝지 않은 소명인 것 같습니다.

쿠키스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하는 청소년과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Young life 성경공부 그리고 가나안 교회 리더 성경공부, 엘톤과 앤드리아 부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5월 중순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로룩스교회의 수련회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아버님 장례 이후라 어찌할 지 기도만 했는데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유로룩스 교회 전영광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에 저희 부부가 오히려 짐과 격려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저희가 7월부터 안식년을 갖는데, 팀선교사님이 8월에 귀임하시게 되어 그때 까지 한 달 간을 가나안교회 리더들이 돌아가며 어른예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학을 마쳤거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리더가 4명이고 올 하반기에 신학공부를 시작하려는 리더도 있어 이들의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쿠키스 청소년 아카데미는 가나안 교회 리더들과 청소년 단체인 Young life와 함께 청소년 성경공부와 전도집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비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팀 선교사님들 모두 한 비전으로 쿠키스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 알바니아 북부,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 발칸반도에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길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 나왔듯이 저희는 7월부터 안식년을 갖습니다. 연로하신 최조영 선교사 어머니님과 홍정희 선교사 어머니를 옆에서 잘 돌봐드리는 안식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짧지 않은 20년 선교의 삶을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며 더 겸허히 준비되는 안식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 보면 지난 세월 여

러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해주시고 신실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삶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제목

1. 쿠커스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해 알바니아 북부,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발칸반도에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도록. 이 비전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 주시길.
2. 성경공부 그룹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강건해 지도록. 여름에 있을 Young life 청소년 캠프와 어린이 캠프 가운데 안전과 성령의 역사하심 위해.
3. 가나안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4. 홍정희 선교사 아버님의 소천으로 인한 어머니와 가족들의 마음에 주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길.
5. 기성이 독일 의사면허 취득 감사와 정형외과 레지던트 수련위해, 사랑이의 마지막 학기와 진로위해.
6. 안식년 동안 더 겸비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최조영 선교사 어머니가 더 강건해 지시도록.